

## 제 4 강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세계 II

### ※ 학습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실재론에 대해 공부한다.

### ◆ 형이상학의 등장

#### ▲ 메타피지카(metaphysica)의 등장

- 기원전 70 년경, 페리파테틱 학파(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학자들이 모여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 편집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은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andronichos) 아프로디시아스에 의해 편집되었다. 그 중 제목이 없는 저작에 'ta meta ta physica'라는 제목을 붙였다(meta 는 after 의 의미). 이로부터 'metaphysics'가 유래했고,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는 구절에 입각해 ‘形而上學’으로 번역했다. 물리학(physika) 다음으로 보아야 할 책이라는 의미로 **메타피지카(metaphysika, 형이상학形而上學)**라 불렀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편집된 것으로 여기에는 형이상학의 문제들, 철학사, 철학사전, 실체론, 가능태, 현실태, 신학, 수학 등 온갖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있다.

#### ▲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분류

- 메타피지카는 존재론(ontologia)과 신학(theologia)이 다루어져 있다. 내용상 ontologia(generalis 일반존재론, 존재론)가 90%이상, theologia 는 10%정도이다. 중세에는 존재론을 ‘일반 존재론’으로, 신학과 자연(철)학(physica) 그리고 영혼론(psychologia)을 합해 ‘특수 존재론’으로 정리했다. 중세철학에서는 신학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분류를 했다. ontologia specinelis thelogia, ontologia specinelis physica(물리학), ontologia specinelis pychologia(오늘날의 심리학이 아님, 프쉬케=영혼의 문제를 다룸)의 세 가지 철학의 분과는 신, 세계(우주), 영혼을 말하며 이는 후대의 철학에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 실재

- 존재론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함하는데,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존재의 있음과 없음, 진짜 존재 즉 ‘실재’의 문제, 시공간의 문제, ‘물질, 생명, 정신’ 등의 문제, 그리고 ‘필연, 우연, 가능, 유한, 무한, 연속, 불연속’ 등의 가장 원리적인 존재방식 들을 다룬다. 이 광범위한 존재론의 주제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기본 주제는 ‘실재’의 문제**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헬라스 hellas 철학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실재(ousia; being 혹은 beingness 존재-존재하는 것)와 실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실재라는 말을 넓게 쓸 경우 10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실재이다. 소크라테스의 키도, 저 장미꽃의 색깔도 모두 실재하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 실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환상, 공상, 착각 등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실재 탐구의 핵심은 **“진짜” 실재가 무엇이냐**는 데에 있다. to on 의 문제, to ontos to(really real), 정말 실재하는 것. 즉 탈레스 이래 추구되어 온 ‘튀지스’, ‘아르케’로서의 실재 탐구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사유가 성숙해 가면서 논의가 좀 더 복잡해진다. 환상, 공상, 착각은 실재가 아니다. 현대철학에서는 환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실재, 즉 근본 실재는 분할 불가능해야 한다(여기에서 ‘분할’이라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로 쓰였다). 어떤 사물이 A 와 B 로 합성되어 있다면, 합성된 그 결과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A 와 B 가 근본적인 것이다. 물은  $H_2O$  인데, 물( $H_2O$ )보다는 H 와 O 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더 이상 분할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근본 실재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개체는 분할된다. 개체는 복합체로서 질료와 형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스타일 style

-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경험주의자다. 연역, 논리적 사유보다는 귀납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류, 비교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사고스타일을 가진다. 이렇게 하여 의견들의 위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 ▲ 근본 실재는 질료인가, 형상인가

-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를 실체라고 생각하다가 후에는 개체를 제 1 실체로, 형상을 제 2 실체라고 말했다. 이는 서구적(연역적) 사고에서는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다. **개체는 질료와 형상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1 차적인 근본 실재는 개체이거나와 개체에게서도 어떤 부분이 보다 더 실재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얼핏 일차적인 후보는 질료인 듯이 보인다. 어떤 개체를 규정(規定)하고(determine) 있는 것들(언어상으로는 술어들)을 모두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것(hypokeimenon) 즉 질료**일 것이기에 말이다. 개체는 주어가 되고, 그 개체에 부대하는 성질은 언어상으로 술어가 된다. 그 술어를 다 제거하면, 그 술어들에 의해 규정된 그 덩어리가 남을 것이다. 그것이 hypokeimenon 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는 근본 실재가 될 수 없다며 기각시킨다.

### ▲ 왜 질료는 근본실재가 될 수 없는가

- 질료는 말하자면 허여멀건 바탕, 터에 불과하며 뚜렷하게 인식할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근본 실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근본 실재가 우리에게 뭐라고 딱히 규정할 수도 없고, 뚜렷이 인식할 수도 없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질료의 실재를 인식한다면 이미 질료가 어떤 층위에서든 규정성들을 띠게 되었을 때이고, 이미 형상이 개입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안다, 인식한다는 것은 determine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 무엇이 아닌, 아무런 얼굴도 없는 터가 근본 실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훗날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로 유사한 생각을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생각 아래에는 진정한 존재, 근본 실재는 영원하고 자기 동일적이고 순수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플라톤 사유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질료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 \* 참고자료 1

라이프니츠, 독일 철학자 · 수학자 · 자연과학자 · 법학자 · 신학자 · 언어학자 · 역사가  
주요저서 『단자론(單子論) Monadologia』 (1720)

### ▲ 실재와 실체

- 한 가지 혼동되는 것은 ‘substance’라는 현대어이다. ‘실체’로 번역되는 이 말은 때때로 근본 실재, 즉 강한 의미에서의 ‘우시아’의 번역어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hypokeimenon’의 번역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어로서는 우시아의 번역어이지만, 후대의 유물론자들의 번역어로서는 ‘hypokeimenon’의 번역어인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유물론자들이 근본 실재를 ‘hypokeimenon’ 즉 질료→물질로 보고 이것을 ‘substantia’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substance’라는 말은 거의 물질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chemical substance’. 그러나 철학사적 문헌들에서 이 말은 우시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우리말 번역어 ‘실체’라는 말은 물질보다 큰 외연을 가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질료와 형상 중에 형상(우시아)이 근본 실재, 그 형상의 의미로 실체 substance 를 사용했다.** 후대의 유물론자들에게는 질료가 근본실재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실체를 질료로 받아들인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스타일 style

-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경험주의자다. 연역, 논리적 사유보다는 귀납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류, 비교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사고스타일을 가진다. 이렇게 하여 의견들의 위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 ▲ 근본 실재는 질료인가, 형상인가

-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를 실체라고 생각하다가 후에는 개체를 제 1 실체로, 형상을 제 2 실체라고 말했다. 이는 서구적(연역적) 사고에서는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다. **개체는 질료와 형상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1 차적인 근본 실재는 개체이거나와 개체에게서도 어떤 부분이 보다 더 실재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얼핏 일차적인 후보는 질료인 듯이 보인다. 어떤 개체를 규정(規定)하고(determine) 있는 것들(언어상으로는 술어들)을 모두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것(hypokeimenon) 즉 질료**일 것이기에 말이다. 개체는 주어가 되고, 그 개체에 부대하는 성질은 언어상으로 술어가 된다. 그 술어를 다 제거하면, 그 술어들에 의해 규정된 그 덩어리가 남을 것이다. 그것이 hypokeimenon 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는 근본 실재가 될 수 없다며 기각시킨다.

### ▲ 왜 질료는 근본실재가 될 수 없는가

- 질료는 말하자면 허여멀건 바탕, 터에 불과하며 뚜렷하게 인식할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근본 실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근본 실재가 우리에게 뭐라고 딱히 규정할 수도 없고, 뚜렷이 인식할 수도 없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질료의 실재를 인식한다면 이미 질료가 어떤 층위에서든 규정성들을 띠게 되었을 때이고, 이미 형상이 개입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안다, 인식한다는 것은 determine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 무엇이 아닌, 아무런 얼굴도 없는 터가 근본 실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훗날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로 유사한 생각을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생각 아래에는 진정한 존재, 근본 실재는 영원하고 자기 동일적이고 순수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플라톤 사유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질료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 \* 참고자료 1

라이프니츠, 독일 철학자 · 수학자 · 자연과학자 · 법학자 · 신학자 · 언어학자 · 역사가  
주요저서 『단자론(單子論) Monadologia』 (1720)

### ▲ 실재와 실체

- 한 가지 혼동되는 것은 ‘substance’라는 현대어이다. ‘실체’로 번역되는 이 말은 때때로 근본 실재, 즉 강한 의미에서의 ‘우시아’의 번역어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hypokeimenon’의 번역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어로서는 우시아의 번역어이지만, 후대의 유물론자들의 번역어로서는 ‘hypokeimenon’의 번역어인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유물론자들이 근본 실재를 ‘hypokeimenon’ 즉 질료→물질로 보고 이것을 ‘substantia’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substance’라는 말은 거의 물질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chemical substance’. 그러나 철학사적 문헌들에서 이 말은 우시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우리말 번역어 ‘실체’라는 말은 물질보다 큰 외연을 가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질료와 형상 중에 형상(우시아)이 근본 실재, 그 형상의 의미로 실체 substance 를 사용했다.** 후대의 유물론자들에게는 질료가 근본실재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실체를 질료로 받아들인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세계 III

### ※ 학습목표

개별과 보편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해 공부한다.

### ▲ 도입

- 고전문화가 사물이 안정적, 동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면(동양의 분분 개념과 비슷), 현대문화는 안정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예)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Last Tango In Paris, 1972),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 ▲ 개별자와 보편자

- 고대 철학이 보편자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다면, 근대 이후의 현대철학은 개별자를 더욱 세분화시켜 micro 까지 간다. 보편자는 근본 실재인가? 개체, 질료, 형상/본질과 더불어 보편자 역시 근본 실재의 후보에 든다(‘형상 eidos’라는 말이 ‘종 species’의 뜻도 가진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최종 당선자는 아니다. ‘인간’이 소크라테스, 나아가 소크라테스의 형상/본질보다 더 실재한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현실을 구성하면서 운동하고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더 실재적인 것**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어도 ‘인간’은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보편자야말로 더 실재가 아닐까? 개체의 실재가 아니라 종의 실재가 더 실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중세의 보편자 실재론의 입장이다. 이것은 좀 더 플라톤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 ▲ 개체가 우선인가, 보편자가 우선인가?

- 어떤 것이 본질을 탐구하는 것일까. 즉 개체가 우선인가, 개별자가 우선인가, 보편자가 우선인가? 각각의 것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처럼 본질주의자이다. 이 **본질은** 논리적, 추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 활동을 통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개한 가능태와 현실태의 개념이다. 각 존재의 본질은 시간 속에서 발현되며 **질료의 가능태가 현상의 현실태를 점차 갖추게 됨으로써 완성태에 도달**한다. 어떤 사물, 생물체의 본질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 그것을 목적이 앞에서 끌어서 현실태의 진행은 완성태로 움직인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가 미래의 사유라는 것을 함축한다. 모든 사물들이 각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처럼 본질주의자이다.

### ▲ 현대철학의 입장

- 현대철학의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래의 사유가 열린 미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 10. 18 ~ 1941. 1. 4]은 근대 결정론은 물론 목적론 또한 닫힌 시간이라고 했다. “목적론은 뒤집어진 기계론이다.” 또한 사르트르는 ‘실존 existence 은 본질 essence 에 앞선다’ 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면 비판했다. 인간은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본질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네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본질이다(you are what you do)”.

### \* 참고자료 2

베르그송 작품 :

『의식의 직접소여에 관한 시론』(1889), 『물질과 기억』(1896),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1932) 등

### \* 참고자료 3

사르트르 작품 :

『존재와 무』(1943), 『구토』(1938)

### ▲ 인간에게 최선의 삶이란 무엇인가 : 이성(logos)

-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대표적으로는 윤리학과 정치학)은 이상의 존재론적 토대 위에 서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물의 본질과 그 실현/활동, 그에 따른 ‘~다움’ 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어 내려온 사유 전통에 서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는 물음들 중 하나는 “최선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세 가지 인생을 나눈다. ‘쾌락적(향락적) 인생’, ‘행위적(실천적) 인생’, ‘관조적(이론적) 인생’이 그것이다. 이것은 ‘eudaimonia’의 문제인데, 이 말은 ‘행복’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최선의 삶’과 ‘행복’ 사이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해야 하겠다. 후자가 결과론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면, 전자는 당위의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udaimonia’를 (소크라테스적 뉘앙스에서의)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rgon’을 실마리로 이야기한다. 모든 사물들에게 아레테가 있듯이, 심지어는 사물들의 부분에게도 아레테가 있듯이(예컨대 눈의 아레테는 잘 보는 것이다), 인간 자체의 아레테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부분들, 특정한 직업들에서의 아레테가 아니라 인간 자체, 인간의 삶 자체의 아레테. 이것은 역시 소크라테스적인 생각이다. 문제의 실마리는 역시 본질이다.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섭취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일 수는 없다. 나아가 동물도 운동하고 감각한다. 따라서 운동하고 감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인간적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최선의 삶의 요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이성(logos)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적 삶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아레테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결론 내린다. 인간적 삶이란 “이성과 합치하는(또는 이성과 함께 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러나 여기에 “전 생애에 걸쳐서”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sophrosyne?)와 이론적 지혜(sophia)를 구분했으며, 둘 사이의 차이를 정교화 했다. 기술자와 과학자는 다르고, 다리를 실제로 놓는 것과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다르듯이 실천과 이론이 다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라는 델포이(델피) 신전의 격언을 다듬어 중용(中庸) 사상을 전개했다. 예컨대 용기는 비겁과 만용의 중용이다. 분노할 때에는 해야 한다.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조금씩 형성되는 지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 ▲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을 비판

-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비판했다. 국가, 폴리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현실적이고 프로그램화 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국가의 본질은 다양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철학과 반국가철학은 역사상 대립해왔다. 국가철학은 다양성을 하나로, 무질서를 질서로, 감정과 욕망과 충동을 이성으로 회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돈하려는 것이다. 유교나 헤겔의 국가철학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반국가철학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부정하며 다양성, 욕망, 자유 등을 강조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이 여기에 속한다. 정체에는 전제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한 정체가 낫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체든 그 잘된 형태가 있고 못된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 참고자료 4**

질 들뢰즈 Deleuze, Gilles, 프랑스, (1925 ~ 1995.11.4)

『차이와 반복』(1968) 『앙티 오이디푸스』(1972, 공저)

**▲ 당대 문화 비평**

- 당대의 문화를 존재론/인식론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했던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차원 모두에서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비평의 새로운 차원을 마련했다. 이 모든 차이들이 형상을 내재적으로 보고, 세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봄으로써 생겨난 차이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잇고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차이를 내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하겠다.